

## 심장이식 14례 보고

부천세종병원

박철현·박국양·이해영·김욱성·홍민수·심재천·나찬영·  
김웅한·정철현·정윤섭·한재진·라명훈·이영탁·박영관·홍승록

심장이식이 1967년 처음으로 인간에서 시술된 이후 말기 심부전환자에서 확실한 시술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2년 11월에 처음으로 46세 여자에게 심장이식을 실시하여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42례가 시행되었다.

본원에서 1994년 4월부터 1995년 9월까지 14례의 심장이식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간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남자는 12명, 여자 2명이었고 연령분포는 11~54세(평균연령 32.3세)였으며, 이식전 대기기간은 1~14개월(평균 3개월)이었고, 이식후 추적기간은 3~17개월간(평균 11개월간)이었다.

수혜자 체중은 29~90kg(평균 57.3kg)이었고, 공여자 체중은 45~75kg(평균 61.8kg)이었으며, 공여심장의 허혈시간은 80~280분으로 평균 120.4분이었다. 입원기간은 20~56일(평균 33.3일)이었다.

술전 진단은 확장성 심근증(dilated cardiomyopathy) 11명, 허혈성심근증(ischemic cardiomyopathy) 1명, 판막성 심근증(valvular cardiomyopathy) 1명, 선천성 복잡심기형(congenital complex heart disease) 1명 이었다.

면역요법으로는 초기 RATG 투여와 함께 cyclosporine, azathioprine, steroid를 병용하였다. 합병증으로는 2명의 환자에서 3례의 거부반응이 있었으며, 술후 감염으로는 aspergillosis 2례, herpes 1례, CMV pneumonitis 1례, RATG 주사부위 감염 1례 소견을 보였다. 환자상태는 사망 4례를 제외한 전 생존례에서 NYHA functional class I 을 보이고 있고, ejection fraction은 술전  $19.9 \pm 3.4\%$ 에서 술후 1개월째  $69.0 \pm 5.6\%$ 보였다.

술후 부정맥은 총 6례에서 나타났으나 1례에서 영구적 심박동기를 장착했다. 술후 사망은 4명으로, 사망원인은 천식발작에 의한 호흡부전 1례, 크기 불일치에 의한 심부전 1례, 술후 지주막하 출혈 1례, 비세포성 거부반응(humoral rejection)으로 추정되는 1례가 있었다.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장기이식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뇌사의 법적 뒷받침 및 장기분배 은행의 설립과 아울러 적절한 시기에 심장이식을 반도록하여 말기심부전환자에서 심장이식술이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하겠다.